

## “건축사”지를 위한 소고

최 창 규

「건축사」지는 누가 무어라해도 우리협회의 기관지이니, 이 건축사지를 발전시키든 길을 향상시키든 간에 대전체인 한단체의 기관지라는 성격과 범주를 넘어서면은 안된다.

어디까지나 이 전제의 범위내에서 개선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협회의 성격부터가 문제될 것이다. 우리나라엔 건축에 관한 세단체가 있다. 즉 학회는 문교부 산하의 학술단체이고 가협은 문공부 산하의 예술단체이고 우리는 건설부 산하의 행정실무단체이다. 영업이나 계몽단체는 아닌것이다.

우리회원은 국가에서 면허를 얻어 영업을 하는 실무를 영위하는 것인즉 각자의 건축에 대한 공부나 연구나 설계실무의 행상은 각자가 알아서 각자 나름대로 할 것이다. 오직 실무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실무에 유리하게 모든 법령이나 세무요율 등 권익옹호만을 해주고 상호가 친목하면 그 사명은 완수되는 것이고 기구를 확대하거나 무슨사업을 한다거나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고로 상기한 원칙 아래서 기관지인 건축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인가 보다 실효있게 만들 것인가 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상기의 대전제 아래서 개조별로 들어보면

체제—현재 크기에 현재 페이지 수 정도로 좋다고 생각되며, 표지는 연차별로서 색조를 바꾸고 그 연차 내에선 그 색조계중에서 농담으로 구분하면 가할것 같다.

내용—내용은 전기 원칙 아래서 회원들이 협회에 가장 알고 싶은 것(법령법규, 협회소식, 지부소식, 회원동정, 건축계의 문제점 동향, 회원들의 실무에 대한 각종 통계)을 위주로 하고 기타 원고도 가급적이면 회원의 원고가 우선적이 되

어야 할것이며 특히 화보는(사진도 포함)회원의 작품이라면 그 선악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고 작품적인 가치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영업지, 계몽지, 전문지, 교양지, 대중지, 학술지, 예술지나 종합지가 아닌 기관지이기 때문에 구차하고 복잡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예산—예산은 광고료등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술적인 것은 학회서 낼것이고 예술적인 것은 가협에서 낼것임으로 회원의 회비로 지탕하는 협회 예산을 더 방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하물며 판매등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발행 부수도 회원수와 약간의 정증분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결론—우연히 약 삼년간이나 편찬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진 생각을 다해 보았고 더 Academic 하고 더욱 Olyzinal 하게 모단하게 부수도 체제도 좀 색다르게 해볼라고도 했지만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또 호흡이 잘 맞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지만 곰곰히 생각하니 그것이 다 그릇된 일이 되었다고 알게되고 한 단체의 기관지라는 성격과 범주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오직 우리 건축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편찬위원들 보다 오히려 회원 각자가 이 건축사에 더욱 관심과 이용과 야김없는 의견을 혹은 평을 기탄없이 표시해서 반영시킬 때 만이 비로소 훌륭한 우리 기관지가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끝으로 편찬실무 직원이 편집의 전문가가 있어야 같은 내용이라도 더욱 돋어나게 만들 수 있겠고 편찬위원들이 부담하여 실무를 할 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